

한국형 임플란트 Protect-447 임플란트의 다양한 임상적 적용 증례



김태인 태-원 치과의원 원장

- DDS, DMD, MSD, PhD.
- 미국 USC 치대 졸업 및 임상조교수
- 미국 Indiana 치대 구강보건연구소 연구원
- 미국 Texas 치대 임플란트과정 수료
-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금속연구부 연구원
- 대한치과이식 학술상 수상
- 대한치과이식 이사
- 대한치과보철학회 이사
- 경희의료원 보철과 외래교수
- 식품의약품안전청 인체조직이식재 협의체 위원
- 태-원 치과의원 원장

프로텍트-447 임플란트는 1996년 국가기관의 G-7 프로젝트와, K-2000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시작되어 개발되었다. 임플란트의 디자인 개발과 컨셉은 처음부터 한국인의 체형과 악골 형태, 식생활 패턴을 고려하여 설계되었으며 자연치아와 유사한 형태의 치근 형태로 치아의 응력분포를 최대한 고려한, 국내최초의 한국형 임플란트로 제작되었다.

1998년 동물실험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시술과 제품판매가 시작되었으며 김태인 박사가 환자에게 식립한 1,200여 Case 이상 임상 Report를 보고한 바 있다.

프로텍트-447 임플란트는 단순히 외국제품을 복제한 다른 국산 제품과는 확연히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치근형태로 발치 후 즉시 임플란트에 매우 유리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 단순하고 평이한 케이스 뿐 아니라 상악이나 전치부 또는 상악동저상술과 병행하는 케이스 등 다양한 임상에서 우수한 성공률을 보이고 있다.

한국인에 초점을 맞춘 최초의 제품으로 External Type 연결방식을 가진 2회법과 Internal Type 연결방식을 가진 1회법 두가지 제품이 있으며 앞으로 독특한 디자인의 훌륭한 순수 국내제작 임플란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